



1. 가축복지 관련 언론보도사례와 문제점

우리는 지금 이야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의 이야기들은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도란도란 들려주고 들어주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소나기 같이 정보를 쏟아붓는 대량 전달 또는 대중전달의 시대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혹은 줄인 말로 ‘매스컴(mass com)’이라 부른다.

텔레비전은 가장 막강한 이야기 매체이다. 과거의 이야기꾼은 많아야 수십 명의 대중을 상대로 이야기를 펼쳤으나 오늘날의 이야기꾼인 텔레비전은 수만 명, 수십만 명,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자파를 수단으로 하는 정보를 뿌린다.

이 분야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의 경우 태어나서 만 20세 성인에 이르는 동안에 약 3만개의 전자파 이야기를 관람한다고 한다. 오늘날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야기꾼은 텔레비전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오락성과 교육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세상 방방곡곡에



서옥석 과장 / 농학박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금과

빠짐없이 비치된 텔레비전은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이다.

얼마 전 모 방송사의 TV 프로에서 '환경스페셜, 동물복지를 말하다' 라는 내용이 방영되었다. 내용은 '부리자르기', '케이지 사육' 문제로서 재작년이던가, 방영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다. 시청자들의 반응 역시 격렬하다.

“이제는 ‘방목’ 사육된 것이라고 적힌 상품을 사고 싶네요.” “매번 TV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런 걸 먹고 있었구나’ ‘정말 먹을 것 없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인공부화기에서 태어나자마자 기계에 부리를 잡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병아리들의 모습.” “마치 쿠키 만들듯 컨베이어 벨트를 돌며 분류되고 주사를 맞고 내던져지는 아이들, 그건 생명이기보다 그저 밀가루, 초콜릿가루와 같은 식재료일 뿐이었다.” “기가 막히게 자동화된 도계장의 기계들 또한 너무 효율적이게 닭이 아닌 닭고기를 찍어내고 있었다.” “상상을 초월해 기계화된 공장식 축산 시스템 속에서 인간에게 가축화된 동물들은 생명이 아닌 밀가루와 다르지 않은 고깃덩어리로 전락해 있었다.” “방금 전 환경스페셜, 동물복지를 말한다 프로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보고서 한동안 닭고기와 계란을 먹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듯이 아무리 식용으로 쓰이는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죽을 때 죽더라도 자유롭게 살다가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돼지나 닭이나

우리들이나.” 시청자들의 느낌을 적어놓은 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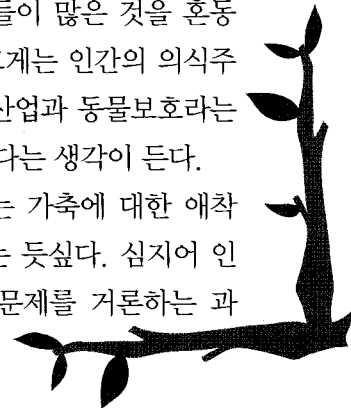
“어떤 의미에서 텔레비전 이야기는 상업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들은 시청자에게 일정한 관점을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도록 끊임없이 강요한다” ‘진짜 이야기를 찾아서’의 저자 윌리엄 R. 화이트의 지적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조지 거브너 교수같은 비평가는 텔레비전이 나름대로의 세계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환상을 진실이라고 설득하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영화 네트워크는 주연배우 피터 핀치에게 오스카상을 안겨준 1976년의 히트작이다. 주인공이며 앵커맨인 하워드 빌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은 밤마다 그 앞에 앉는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텔레비전이 현실이고 자신의 삶이 비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집단적 정신착란이다.”

오늘날 텔레비전이 우리의 일상적 판단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는 생각이다.

‘환경스페셜, 동물복지를 말하다’ 라는 주제의 TV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해 우리와 같은 축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우리의 소비자들이 많은 것을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크게는 인간의 의식주 수단으로서의 산업인 축산업과 동물보호라는 개념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축산인들이 지니고 있는 가축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잘 모르고 있는 듯싶다. 심지어 인권의 차원에서 가축복지문제를 거론하는 과



잉태도도 눈에 띈다. 그들이 볼 때 축산업 종사자들은 몰인정하고 잔혹하고 부도덕한 부류에 속한다.

현대의 축산기술은 가축이 지니고 있는 유전적인 형질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이다.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으로서의 가축은 안전하게 그리고 균일하게 생산되어야 한다. 그 수단으로서 가축에게 적절한 영양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고통과 그 밖의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킨다. 병아리의 부리자르기를 해주는 것도, 케이지 사육방식도, 축사의 환기관리 기술도 모두가 과학적인 실험결과를 근거로 만들어진 기술이다. 시대가 흐르면서 가축복지에 관한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은 담론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일 뿐 사안별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옳고 그름의 차원으로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

2. 가축복지의 개념과 육계 관련 주요 논쟁

그러면서도 가축의 복지문제는 모든 축산인들이 준비해야 할 분야이다. 종사자 모두가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연구자들은 현재 시비가 난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적 기술을 마련해야 한다.

가축복지(Farm Animal Welfare)란 동물의 고통을 없애고 학대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도덕·윤리, 사상·철학, 습관·문화, 종교 등의 측면과 경제·정치적인 측면이 복잡하게 얽혀있



는 사회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으며, 동물복지가 사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개념과 기준을 필요로 한다. 이에 반해 동물보호(animal conservation) 운동은 동물종의 멸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동물개체의 보호와 고통을 없앤다는 목적을 가진 동물복지의 개념과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가축복지의 기본 이념은 1997년 유럽연합 성립의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암스테르담 조약의 '가축복지에 관한 특별 의정서 선언'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가축복지의 기본 원칙으로는 1993년에 영국의 '농업용동물복지심의회(UKFAWC)'가 제창한 내용인 굶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불쾌감으로부터의 자유, 통증·상처·질병으로부터의 자유, 통상적인 행동에 대한 자유, 공포나 슬픔으로부터의 자유 등 이렇게 '다섯 가지의 자유(Five Freedom)'를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매년 사육되는 육계수는 400억 마리 정도이다. 이들은 산란계와 같은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밀상태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것이 가축복지론자들의 주장이다.

육계의 성장속도는 매우 빠르다. 40g 정도의 체중이 40일 만에 50배 이상으로 성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뼈나 심장, 폐의 성장이 몸체의 성장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육계가 당하는 고통이 매우 클 뿐더러 급사증 후군이나 신장질환으로 죽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축복지문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3. 생산자 입장에서의 제한

가축복지 의식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유럽의 축산분야에서 육계는 산업 비중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복지를 지킬 수 있는 총체적인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부분적으로는 영국의 경우 육계의 최대 사육밀도를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있고 종계에 대해 격일 또는 며칠 간격으로 먹이를 주는 방식의 사료급여방법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이밖에도 장거리 운송시의 규정, 시장 출하시 지켜야 할 사항, 도계시 취급 방법이나 기절시키는 방법, 도축 방법, 살처분 방법 등에 관해 각각의 규정을 정하고 있고, 그 사항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사항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육계를 기르는 방식은 평사의 시설에서 35일 정도를 키워 3.3m²당 90kg 내외의 생체중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사육밀도도 제정되어 있고 그것을 위반하면 벌금도 물게 된다.

야외에 방사를 하여 키우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생각되나 그런 종류의 시험결과를 보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폐사율도 높다.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사육과 부리자르기 등에 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그 기술이 생겨난 배경에는 닭에 대한 복지적 배려가 이미 깔려 있으며 그 방식이 적절치 못하다는 시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체계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금의 방식이 닭에게 어떤 괴로움을 주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아직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방식으로 생산된 축산물에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무조건적인 복지요구는 너무 앞서가는 발상이다.

가축복지문제에 대한 언론의 태도에 축산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그 내용을 통해 현재 축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혹은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앞서 시청자의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혐오와 기피와 착각의 세계를 보여줄 뿐 더욱 나은 축산업의 방향을 제시하지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갈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닭고기 생산방식은 세계적이다. 생산성도 높고 위생적으로 처리된다. 끊임없는 기술향상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가축복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면 과학적인 대안 기술을 만들어 내면서 이를 수용하는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갈 준비도 되어있다. 모두가 철저한 검증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우리나라 육계 생산자들은 그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다. 